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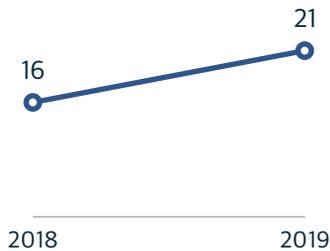
1



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 '외롭다'

- 통계청이 최근 발표(6월 18일)한 '2019 한국의 사회지표'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21%가 '외롭다'고 응답하였는데, 1년 전(16%)보다 5%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
- 이러한 사회적 고립감은 월 소득 '400만 원 미만 층'에서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뚜렷한데,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소득이 낮을수록 크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

[그림] 나는 외롭다
(‘그렇다’** 응답률, 2018 vs 2019)



[그림] 나는 외롭다
(‘그렇다’** 응답율, 2019년 월 소득 수준별)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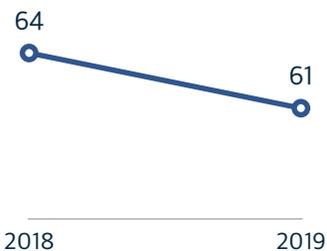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통계청, '2019 한국의 사회지표', 2020.06.18.(한국행정연구원, '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', 전국 19-69세 남녀, 8,000명, 2019.09-10)
** '그렇다'는 '약간 그렇다+매우 그렇다' 응답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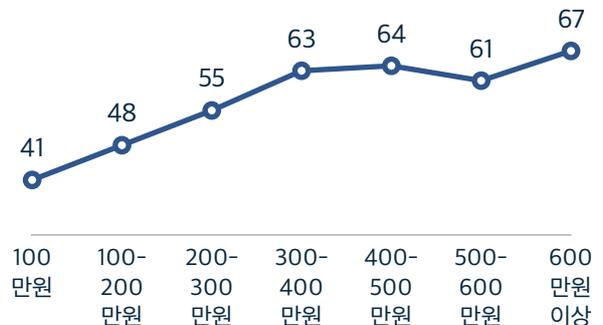
● 우리 국민 삶의 만족도 역시 전년 대비 하락

- 2019년 우리나라 국민 중 '삶에 만족하다'고 응답한 비율은 61%로 나타나 2018년 64%보다 3%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- 또한 월 소득 400만 원까지는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지만 400-500만 원 이상이 되면 만족도가 비슷하거나 크게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보임

[그림] 삶에 만족한다**(2018 vs 2019)



[그림] 삶에 만족한다(2019년 월 소득 수준별) (%)



*자료 출처 : 통계청, '2019 한국의 사회지표', 2020.06.18.(한국행정연구원, '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', 전국 19-69세 남녀, 8,000명, 2019.09-10)
**0-10점 중 6점 이상 응답 비율